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현대 감각 더한 창극 ‘애춘향’

광주시립창극단, 7~8일 예술의전당 대극장

‘그네’ 중심 무대 연출…감정선 극대화 ‘눈길’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춘향과 몽룡의 ‘사랑가’가 울려 퍼진다. 익히 알고 있는 춘향전과는 비슷한 듯 다르다. 고전 서사는 살리되 춘향의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

연출 역시 달라졌다. 검은 극장에는 춘향의 집 같은 세트가 사라지고, 그네 23개가 있을 뿐이다. 극의 구성도 변화를 줬다. 변학도의 생일잔치가 없다. 이렇게 달라진 무대는 새롭게 작창한 곡들로 채워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광주시립창극단이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8일 오후 4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62회 정기공연 창극 ‘애

(에) 춘향’을 선보인다.

고전 서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낸 이번 무대는 타이틀에서 엿볼 수 있듯, 사랑이 테마다. 춘향의 감정 변화에 따른 사랑에 방점을 두면서 춘향과 몽룡의 순정을 그린다. 팔을 향한 월매의 모성애, 방자와 향단의 천진한 사랑,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변학도의 폭력 등도 다뤄진다.

극의 핵심 장치는 ‘그네’다. 전통 놀이문화의 상징인 그네는 젊음과 자유, 설렘과 그리움을 상징한다. 하늘을 오르내리며 흔들리는 그네로 춘향과 몽룡의 설렘, 춘향의 신분 상승을 향한 욕망, 변학도의 권력욕 등을 다양하게 표현해 등장인물의 내면을 밀도있게 표현한다.

무용수가 무대에서 살아있는 글씨가 된 듯 붓을 휘두르며 일필휘지를 표현하는 연출이나 세트 없이 그네만으로 채워 여백의 미를 살린 무대 등은 마치 한복의 한국화를 연

상케할 전망이다.

어사출두 장면도 인상깊게 볼 장면이다. 움직임 대신 단원 34명이 다함께 앉아 북을 두드리며 어사출두를 알린다. 뿐만 아니라 원전 판소리를 바탕으로 작창과 구성 반주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생황과 탐파니를 더해 관객들로 하여금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소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몽룡 역은 박무성, 춘향 역은 이미소(7일)·이서희(8일), 월매 역은 정선심, 변학도 역은 장영현(7일), 박형진(8일) 등이 맡아 열연을 펼친다. 연출은 김영봉, 대본은 홍석환, 작곡·지휘는 김성국, 작창은 주소연이 맡았다.

김영봉 연출은 “기존 춘향전에서 났던 공간적 무대를 모두 그네로 연출했다. 무대의 리얼리티를 과감히 덜어 배우의 소리와 감정선에 오롯이 집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용호 총감독은 “광주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담은 서편제 소리를 바탕으로 지역만의 색깔을 살린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연에서 과거의 춘향이 아닌 오늘날 춘향의 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에서 할 수 있다. 입장료는 R석은 3만, S석 2만, A석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생애 첫 완판 작창 선보여 뿌듯”

주소연 명창, 창극 ‘애춘향서’…관객 반응 기대

“광주시립창극단 창단 멤버인 제가 창극단 작품으로 생애 첫 작창을 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큼니다.”

광주시립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창극 ‘애(에) 춘향’의 작창을 맡은 주소연 명창은 최근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립창극단 창단 멤버로 활동하다 그만두고 나와 소리꾼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지만 작창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작창은 처음이라 제안이 왔을 때 고민했지만 다 해놓고 보니 뿌듯하다”며 “단원일 적 옛날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창극은 판소리 창법을 쓰는 노래극으로 소리와 춤, 극이 어우러진 종합무대다. 그가 이번에 맡은 작창은 서양음악에서 작곡에 해당한다. 직접 소리를 하면서 창을 짜나가는 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창은 배우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다. ‘애춘향’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손길이 닿은 셈이다.

기존 고전의 흐름을 살리면서 새롭게 작창을 해야해 어려움이 따랐다는 그는 사랑에 방점을 뒤 감정선이 중요한 연출 방향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 소리에 없는 부분을 새롭게 짜 기존 소리를 창극에 울리고 대본에 의해 나온 내용은 판소리로 짜 넣어 고전 서사와 그 의미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시대 감각에 맞게 작창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소연 명창은 “새로운 소리를 짓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다.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하다”면서 “신선한 연출기법으로 시립창극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애춘향’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주소연 명창은 제5호 판소리 심정가 이수자로 광주시립창극단 창단 멤버로 활동하다 현재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를 이끌며 소리꾼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광주 전역으로 찾아가는 야외공연 ‘당신곁에’

이달 매주 토요일 5개구 공연장
퓨전국악·스트릿댄스 등 12회

광주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 11월 공연이 매주 토요일 5개구 지정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처음 마련된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는 동구·남구·광산구에서,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는 북구·서구에서 열린다.

이달 무대는 ‘오늘 밤에는 별이 바람에’라는 주제로 총 12회 진행된다. 퓨전국악과 클래식, 거리예술, 스트리트 댄스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야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은 동구 ACC상상마당에서는 그루의 창작국악 ‘연모의 선율: 그루만의 사랑 서사’가 펼쳐져 젊은 아티스트들이 전통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만날 수 있었다. 남구 푸른길공원에서선 앙상블수필렌이 ‘Salon de Spielen: Back to the 1990’s’을 공연, 90년대 히트곡으로 추억여행을 이끌었고, 광산구 운남근린공원에서는 서의철 가단이 ‘Good Luck 곳’을 통해 민속음악으로 한국의 전통풍습 곳을 선보였다.

이어 오는 8일 오후 4시에는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초록소가 ‘우아한 사람들(Two elegant people)’이라는 타이틀로 거리예술 서커스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는 퓨전사운드혼이 ‘풍류 버스킹 퓨전사운드 혼×자타공인’을 통해 국악으로 개량한 양금의 화려한 테크닉과 전통연희 퍼포먼스를 각각 선사한다.

15일은 소리매국 나라의 ‘新작벽 스테이지’(오후 2시30분, 동구 ACC상상마당), 빛고을댄서스의 ‘춤추는 빛, 광주’(오후 4시, 동구 ACC상상마당), 별사랑예술단의 ‘무릎에서 빛고을로 희망콘서트’(오후 4시, 남구 푸른길공원), 그나메첼로와

르렛의 ‘그대와 나 그나메’(오후 4시, 광산구 운남근린공원)가 준비될 전망이다.

22일은 노매드그라운드 ‘당신곁에 머무는 감동의 선율’(오후 4시, 북구 양산호수공원), 루벌의 ‘포스트맨&폴로세움’(오후 3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올댓국악양상블의 ‘1940 시대의 향기는 당신곁에’(오후 4시, 서구 상무시민공원)가 각각 관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공연은 60분 내외로 진행되며, 별도 예약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야외공연 특성상 날씨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연 변동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gjcf_withyou)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는 광주시 시민 체감형 문화정책 실현의 하나로, 4월부터 6월까지 19회, 9월부터 10월까지 18회 진행됐으며, 이달 12회 공연을 마지막으로 올해 무대가 마무리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 11월 공연이 매주 토요일 5개구 지정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문화공연 ‘당신곁에’ 진행 모습.



층층이 쌓은 기억의 지층들 화폭에 담다

허란숙 개인전, 7일까지 산수아트스페이스

허란숙 개인전 ‘기억의 담론’이 오는 7일까지 산수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산수아트스페이스 두번째 초대 기획전인 이번 전시는 조소 작업을 해온 허란숙 작가의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실크와 무명천, 가죽을 염색해 삼각형 혹은 사각형 형태로 자른 뒤 이질적 재료의 조각들을 채색된 판자에 끼워 완성해왔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 목재에 여러 층의 채색 작업을 한 뒤 그라인더로 연마 과정을 거쳤다. 채색과 연마 과정을 반복해 완성한 작품들을 통해 유년 이후의 기억과 추억 등 삶의 편린을 드러낸다.

장민한 대표는 “허란숙 작가의 작품은 현대미술이 갖춰야 할 두 가지 특성, 즉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만족을 주는 심미적 요소와 더불어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성찰적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는 AI 시대에 AI 이미지가 줄 수 없는 예술작품의 살아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란숙 작가는 성신여대 조소과를 졸업하



‘무중력’

고 성신조각회와 광주조각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조각가협회, 한국여류조각가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전남 창평에서 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립광주과학관 ‘미래직업 진로탐색’ 참가자 모집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미래직업 진로탐색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구를 살리는 미래직업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15일 오전 10시 별빛누리관에 서 진행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직업을 체험해보는 진로탐색 교육이다. 프로그램은 진로탐색검사와 진로체험교

육, 진로강연, 온라인 설문 등으로 구성된다.

진로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풍력발전기를 설계하고, 날개 길이와 수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실험으로 측정해본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가를 희망하면 오는 11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